



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발행인 이강희
편집인 김원일
주필 김원일
외대신문사 (☎06-7128, 961-4151)
외대학보 (☎06-7018, 961-415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보령면 창산리 389
인쇄인 김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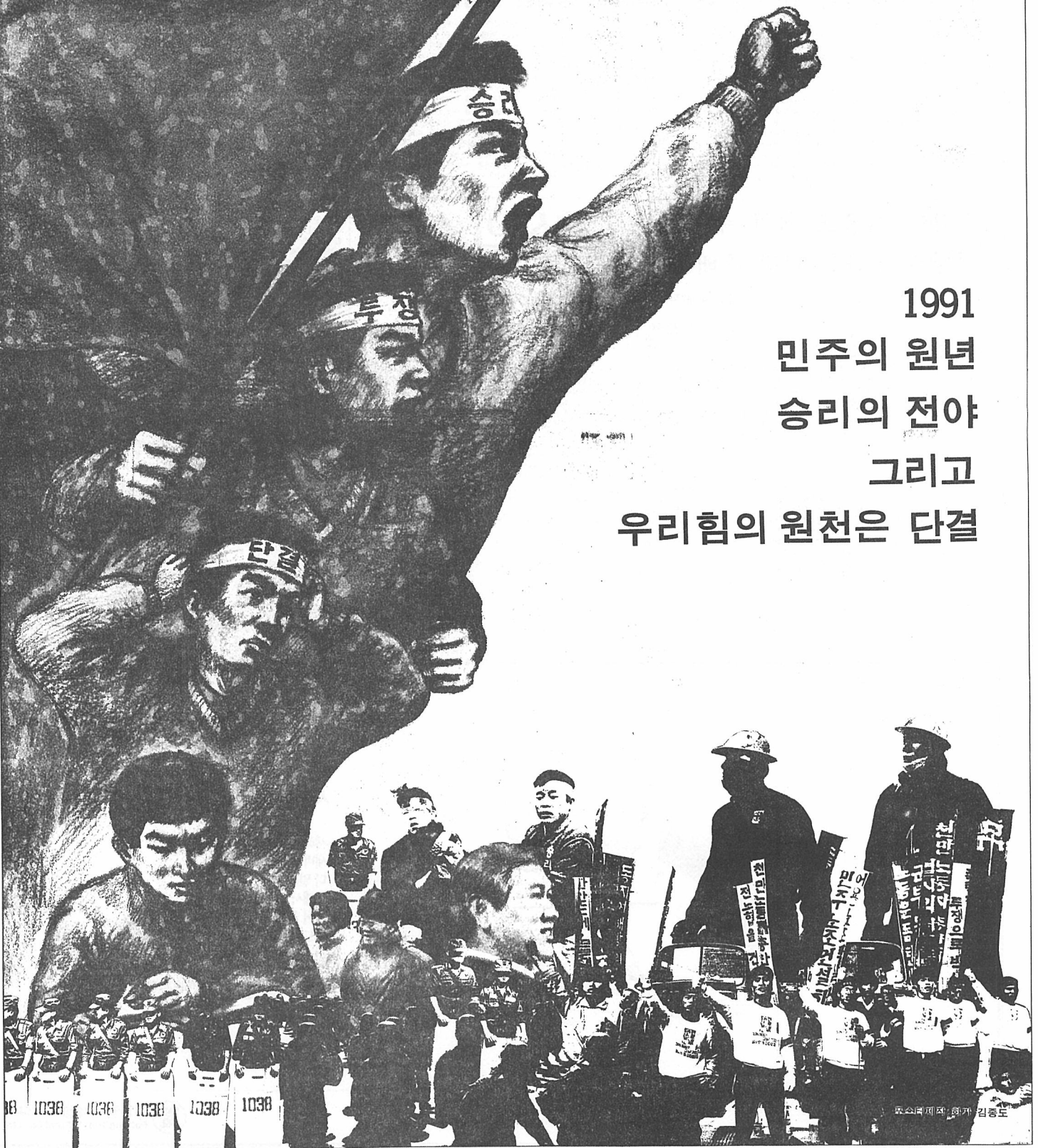
557호 1991년 1월1일(화)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주간)

THE OE DAE HAGBO

창간 1955년 4월11일
등록번호 제 2453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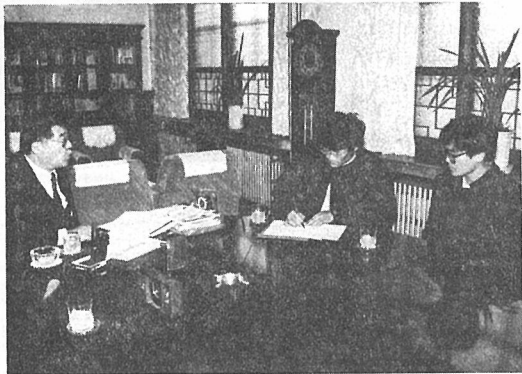
새해에 할 일이 많습니다

1991
민주의 원년
승리의 전야
그리고
우리힘의 원천은 단결



신입생등록예치금, 19% 인상고지

인문계-1백7만9천원, 자연계-1백14만4천원
학교·학생측, 등조위 통해 인상을 확정기로 합의



91년도 신입생등록예치금이 18.64%가 인상된 1백7만9천원으로 발표되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12월27일(목) 오전11시경, 서울-용인 양캠퍼스 총학생회 소속 50여명의 학생들은 교지상 대항에 들어 갔으나, 학교측은 「등록금 고지서를 제발은 물론 등록금 고지서를 배부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신입생들에게 전달하는 손국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전날인 26일(수)에는 학생들과 총장의 면담이 이루어졌는데, 이 자리에서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장 정원태(상경·경제4) 등은 「학교측이 결정된 18.64% 인상은 너무도 일방적인 것이라며 학교측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이강희 총장은 「등록금 인상률의 결정과정에서 여러 여건의 문제점 때문에 「학생들의 의사반영」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점을 시인한다고 말했다.

인상합의를 한 상황에서 18.64%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용인 캠퍼스 부총학생회장 김중민(사학·불교3)군은 「등록금의 인상은 작년 수준으로 등경시켜 부당한 상태에서, 등조위의 구성을 통해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7일 새벽 1시경, 양 캠퍼스 총학생회는 비상회의를 열어 「신입생 등록금 고지서배부를 저지하기로 결의하였는데, 그 전날인 26일 오후에 학교측이 등록금 고지서를 이미 제발은 해 등조위장에 옮겨 놓았기 때문에 등록금 등경배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후 양캠퍼스 총학생회는 「등록금 조정위원회의 재개를 위한 4개항목의 합의서」를 제출하고, 오후 3시30분경, 양 캠퍼스 총학생회장 및 학생회장과 이강희 총장이 합의서에 서명을 함으로써 이문제는 일단락 되었다.

이에 대해 용인캠퍼스 총학생회장 이국형(인문·철학3)군은 「학교측이 일방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고도, 교지상 배부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는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측과 학생측이 등조위의 재개를 합의함으로써 등록금 협상이 1월 중순경부터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측은 이미 18.64%가 인상된 고지서를 발급하였기 때

문에 이를 기준으로 협상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측이 스물거인상 △교직원 차우개선 △교육환경 개선이라는 점과 서경대 등의 대학이 15%이상 인상합의했다는 명분으로 18.64%의 인상률 가파를 역설하고 있으나, 이러한 논리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학생측에서는 등록금 작년수준의 등경 배부 관철을 통해 10%이하에서의 인상을 협의하라고 하였으나, 이미 인상고지서가 배부되고 타대학의 상황이 고부러지지 못한 다소 불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진행해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생측에서는 등록금 투쟁을 위한 학생회 조직화와 신입생 홍보 등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전개될 등조위의 전개에서 학교측의 획기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다소 난항이 예상되며, 후기 신입생 등록금고지서 배부 이전까지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이 문제가 다음 학기까지 장기화·경쟁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설

갈길이 멀고 할일이 많다
신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미년 새해다.
해마다 이맘때면 서로의 행복과 소원성취를 바라는 뜻에서 덕담(德談)을 주고 받는 다.

그러나 덕담 자체에는 「이루어 내기에는 너무도 아득한 것」에 대한 「위로」나 「부담」이 섞여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해를 맞는 외대는 막대한 할 정도의 한 가로움이나 여유가 없다. 그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이루기에는 너무도 힘든 것으로」 지부되어 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37상상을 살아내고 있는 외대, 이제 우리는 장년(長年)외대라 이름 부르고 있다.

모든 삶이 움직이는 것은 해를 거듭할수록 설득 있고 성숙해져야 함은 당면성의 차원을 넘어 실천성·현실성의 문제이다.

수십년전 외대의 모습에 비추어 불과 몇 년 외대는 얼마나 영글었는가? 오히려 그 모습이 사라져 가고 있지 않은가?
사실 근래에 외대는 정체를 무기력에 져어들어 헤어나올 수 없는 부채에 갇힌다. 따뜻한 봄날 월요일 오후의 나른함과는 같은 그릇 말이다.

91년 대학입시와 관련, 유력한 일시학원이 축적한 지원기준은 공문적으로 외대가 「옛 명성」을 회복해 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마음 놓아서는 부진에 걸린 다.

그러나 문제는 오히려 다른 곳에 있다. 그렇게 흘러온 「인제」가 4년후에 대학문을 나가기까지의 과정이다.

교시합격생 수호나 취업추진서 몇몇으로 대학을 가려는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치자.

그러나 그 부분을 제외한 보다 내부적인 면에서도 「명문종합대」라 자부하기에 결코 어려운 요소들이 많음을 솔직히 시인해야 하

리라.
교과과정·학사행정·연구풍토·마스터플랜 등 지금껏 융합에 숨겨왔던 부분들에 대한 대수술이 시급하다.

「좋은인제 더 좋게 만드는 것」이야 말로 나위 없지만 「좋은 인제 그 상태는 유지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는다.

신입생 모집원서에 참가하는 학교홍보행 플릿에 참여한 학생들 지만 해도 「명문」의 결속력은 결박하다. 대학정국은 타이 상 그 입부를 후일도 비추어서는 안된다.

87년 6·10학생을 촉발했던 외대의 신화는 이제 신뢰의 결단기.

인수경·유식양 학부의 투쟁이 아니더라도 「외대」는 민족과 민중의 자상이라 멋있게 말하기에는 우리가 한 일이 끝내 만족스럽지 못하다.

철명한 정보정조를 두려워하는 총학생회 간부의 근심과 세련되지 못한 간부들의 대 중화의를 접하는 학생대중의 아쉬움의 한해 있다. 그리고 그런 아쉬움 외대는 갈수록 우리의 투쟁을 지치게 만들고 우리의 민주인사들이 여러가지 조직사건의 이름으로 테스들을 장식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제 총지부를 켜자. 그 외대의 차용력이 여러 과정에서 말갠되었을진만 이제 그 울바른 실력이 남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것이 새해바람에 쓸모 없는 년 두리가 아닌 우리에게 지워진 중요한 집임은 끝마친 연말 정국이 증명하고 있다.

갈길이 멀고 할일이 많다.
「학원자주」「사회민주」「조국통일」을 위해 「합력」하는 자주의 피로 모든 대학주인이 나른한 오후를 일치고 기거자를 판매

출발이다.

전기대학 입시결과

본교 제91학년도 전기입시 합격자 발표가 지난 12월26일(수) 서울캠퍼스 본관 앞 공동 전파부근에서 있었다.
이날 130여40명의 신입생들은 신입생예비집합을 통해 합격자를 배부받았다. 신입생 신체검사는, 서울캠퍼스는 27일(목) 대학원에서 용인캠퍼스는 28일(금) 용인캠퍼스 학생회관에서 각각 실시했다.

입학등록은 27일부터 31일(월)까지 서울캠퍼스 본관층 경리과에서 접수했는데 학교당 국과 학생측의 등록금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아 등록금 액수가 변경될 수도 있다.

신입생 예비합격은 올해 2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캠퍼스와 용인캠퍼스에서 각각 실시되고 이 기간 동안 대학생활안내 및 수강신청기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12월18일(화) 실시된 본교 전기입시는 서울캠퍼스 청량강·교과, 석관동·교과동 5

영어과 박성곤 군 전체 수석 차지



개 시험장에서 치뤄졌다.
5.07대의 경쟁률을 보인가운데 실시된 이번 입시는 8천3백23명지원에 8천2백명인 응시, 98.5%의 응시율을 기록했고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속에 진행되었다.

본교 전체 수석은 서울캠페

스 서양어대학 영어과를 지원한 박성곤(대구 영신교회)군이 485.7점 만점에 427.3점을 얻어 영상을 안겼다.

교과 합격선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되지 못했으나 교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합격선은 다른 대학 수석에

따라 본교도 몇 다름아 없다.」며 「서울캠퍼스는 6개학과, 용인캠퍼스는 19개학과의 합격선이 올랐다」고 전했다.

후기입시는, 1월3일(목)부터 7일(월)까지 각 단과대학에서 원서를 접수하고 1월22일(화) 시험을 치른다.

반의자

▲「간절히 바란다」
지난 12월24일 기자 간담회 석상에서의 노태평명의 말씀이다.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가.

그것은 다름아니 바로 2년전인 88년 11월23일 5공비리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산사(山寺)에서 「불행하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하연 국민은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가.

있을 수 없는 80년 광주 민주항쟁의 전상규명과 그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국가적인 보상과 5공비리의 완전한 청산이다.

그런데도 「국민이 전(全) 전임대통령의 하산에 동의할 것」이라고 단언한 노태평명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더이상 질지 못할 일이다」
전두환 전임대통령의 하산을 「희망(?)」하는 「위대한 보 통사람」의 말씀이다.

무엇을 더이상 질지 못할것인가.
「전직 대통령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대우해야 할 책임을 전 입정에서 이토록 불행하게 백담사에 계속 머물도록 하

는 것」을 도저히 못 참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국민은 무엇을 못 참는가?
국민과의 약속을 기만적으로 파기하고 오히려 국민을 탄압하는 정권을 참지 못한다. 또한 「은근, 미묘, 아예」 「속죄」하는 마음조차 보이지 않는 원한자를 참지 못한다.

▲노경일이 5공청산을 회피하고 오히려 5공으로의 회귀조치를 보이며 전두환 전임 대통령의 하산을 논(論)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6공이 5공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증거이다.

또한 이는 노경일이 인기등단 국민을 위한 실질적 정책들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채 자기 집 권을 위해 5공세력을 끌어 들여 여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음모」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80년 광주에서 「죽도」라 불리며 쓰러져 간 것들을 아직 달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당시의 책임자는 치명당하기는 커녕 「용서(?)」를 받고 외기양양하게 퇴로아오 하고 있다.

누구의 용서를 받은 것인가.
속죄가 있기 전에 용서가 있을 수 있는가.

혹 전(全) 전임대통령이 하산한다면 그때는 전정 국민의 용서를 받을 수 없으리라.

(김연희)

용서 못할 하산

새마음 새뜻 새外大人

-전통의 굳은 단결로 미래를 열어갑니다.

정상을 향한
꾸준한 진전
2000년대의 새 주역
外大人이
뜨거운 정열과
냉철한 자신으로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
새해의 밝은 태양이 밝히는
外大의 아침 —
外大人의 마음은 언제나
희망찬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3만여 동문과
1만5천여 재학생이
진리
평화
창조의 기치 아래
이룩한 外大의 전통 —
젊음의 패기와
굳은 단결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外大人의
새 시대를 개척하는 관정환
오늘의 일꾼입니다.

韓國外國語大學校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분단 46년 한국교육의 발전

미군정시대 교육정책

미군정 3년은 분단 40여년간 형성된 교육의 원년이며 민족사의 축소판이다. 철저한 민족주의정신을 억압하고 대외종속적·추종적 사회구조를 정착시키고 친미·반공의 기질을 마련한 시기로서 바로 오늘날과 같은 기형교육구조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이때의 교육정책상의 특징은 크게 세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일제식민지 교육정책을 온존·비호하고 있다는 점, 둘째 자유적인 교육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하고 있다는 점, 셋째 교육을 독점하고 있는 친미 교육정책에 있다는 점들이다.

일제식민지 교육기구의 총독부의 학무국을 미군정 학무부으로 전수, 식민지교육정책을 그대로 답습, 관료제에 친일색을 대거투입하고 있다. 「일제잔재청산」, 「학교건조법」, 「민족자유교육」 등 교육에 대한 민족적 요구를 좌절시켜 주었다. 친미적 탄압을 가하고 이때 행해진 교육자살은 1천1백여명에 달한다. 그대신 친미적인 「조선교육연합회」(대한교원 전신)를 육성하여 친미반공의 교육적 기질을 마련하였다.

미군정의 교육독점정책은 더욱 노골화 되어 1946년 6월19일 「국립서울대학교법」으로 확립되었는데 이는 오늘날 교육독점정책의 선례를 제공한다. 장성대하 등 「리대」를 통해 친미대학을 설치하고, 미국으로 유학생을 보내고, 국수주의적 「국민교육당」 창당과 같은 교육정책을 강행하는 등 친미적 기질을 더욱 강화하였다. 57개교로 동맹국화하는 등 광범위하게 지원하게 된 것이다. 부흥은 2년남짓 지속되었으나 조국대변에 실패한 친미파는 사상적 균열이 생겼고 이로인해 좌파·파진되어 이후 분단교육의 진원·진미세력이 교육의 해체모순을 장악하게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50년대 민족주의해체기

6·25로 인해 반공이데올로기는 대중적 정서화되어 신념이 교육이념에 반영되고, 민족주의해체는 괴멸되다시피하여 국수적색은 절실히 해체모순을 장악하게 된다. 동시에 중국대변의 종산화로 한국과 일본이 소련에 대한 군사기조로 친일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시대적 상황속에서 한국 경제의 대외존존 체제로 인위적 위한 무상전환으로 실시되었고 교육의 원초는 유상전환으로 전환된 60년대를 대비한 노동력의 기조를 마련하는 수단이 이루어졌다.

이 시대에 나타난 교육의 특징은 교육원의 일원화로 미국의인 한국인 원거지조로 미국향 이민이 열려가 형성되어 이후의 지속력이 있다. 대외존존의 이데올로기를 유지

하는 친일역할을 할 그들이 단단한 원리 토대에 그 원형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1955년 1호 교육과정령이 공포되어 60년대부터 추진된 종속적 경제발전이 유용한 노동력을 제공을 시킨다는 의미의 생활중심 교육과정과 실업교육이 강조되었고, 민족주의 해체와 서구중심의 보편주의 사상의 사회개혁이 지반을 넓혀

아직까지 공업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교육의 강조는 서비시대의 비대화로 일차적 원

「부시형 진화」인데 이는 50년대 60년대 경제 원초의 배분과정에서 커진 서비시대의 비대화, 2차산업의 확대도 고급인력의 필요성과 상대적 과잉인구가 초래하는 저임금을 계산에 넣고 파업경쟁, 파의 치맛바람의 해소와 학교교육정성화라는 하울들은 모순으로 시화되게 된 것이다. 또한 이것은 70년대 고교평준화 정책의 배경까지 포괄하고 있는 논리이다.

70년대 유신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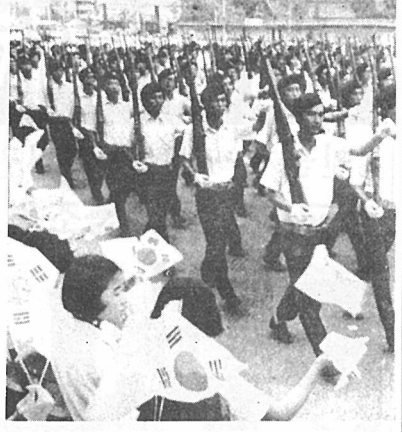
발생하고 이어가는 세계질서를

위기상황에 직면하였다.

71년 12월8일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하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모든 언론·방송·출판물을 차단하는 등 모든 사회 상황속에서 민족적 요소를 잠재우면서 단단한 현실체제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미국과 박정희의 이해관계로 7·4 남북공동성명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민족·민주세력의 요구는 「민청학련」의 조직시도로 한차례 세파를 맞았으며 이를 빌미로 문교부는 반공관련 내용의 교과서 대폭 확충, 고교입시·대학입시에서 반공교육을 중점

원제를 골라주도록 하는 80년 7·30 교육개혁과 84년 보수중립부활조치가 결정된 것이다.

우리시대 교육은 철저히 정치에 종속되었으며, 교육정책은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민중이 철저히 배제당하는 사회구조속에서 교육의 권리 또한 침해되어 사립학교의 해체사태가 속출하였고, 이러한 모순의 심화는 자연히 그 모순에 대응하는 교사집단의 형성을 가져올 수 밖에 없었다. 교사들의 움직임은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과정으로 계속되었다. 바로 80년대



학도호국단은 친미반공이데올로기로 조직된 사상훈련장이다.
(사진:우리교육 12월호)

해방후 교육의 양적 팽창, 지배세력의 효율적 통제기반 구축·저임금 초래

기 위해 삼국학교의 전학을 부추기 50년대말 과열 입시경쟁으로 과잉 교육된 고급실업군을 배출하게 된다.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진 입시경쟁의 단초를 만든 계기로 그 배경원인을 주목할 만하다.

60년대 반공이념의 국사화

미국의 원초에 매달렸던 이승만 대통령의 미국의 전진적 힘의 약화로 원초가 차원으로 전환되는 시 혼란을 빚게 되었으며 축적된 사회·경제적 모순은 4·19는 민중의 기대한 힘에 의해 폭로되게 되었다. 4·19 이후 반공이념의 팽창은 통일운동과 자연이념적 집합을 이 조국통일에 대한 인식의 전환기에 직면하였다. 「통일과 조국통일운동」의 집합으로 이어진 학생의 움직임과 「민족통일민주학생연맹」이 조직되어 분권집단이 남북 학생회담을 개최하는 학생운동의 격적 변화와 학생·지식인에서 기술인민의 대중운동으로 연결시켜주는 교사운동의 진원지인 교원노조의 형성은 1960년대 초창기 즉각적인 민주·민족해방의 엄청난 역량을 발로였다.

5월22일 결성된 교원노조는 해방 후 제도교육으로 양적 팽창을 경험한 교육자들과 학생들의 교육개혁에 대한 인식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였다. 학원민주화와 교사의 지위향상, 부당해고 금지, 교사의 자주성향상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자원의 상충을 위해 경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정부」라는 미국의 의도적 출현만 박정희 군부정권에 의해 61년 5·16이후는 거대한 폭풍속에서 2천여명에 이르는 교사의 해체를 치르며 다시 반공의 이념이라 접어들었다.

반공과 신식민지 종속성이 경제 개혁을 위한 동력으로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교육과 「군사정변」의 시계 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으로 집약하였다.

주목할 것은 68년 실시된 중학교

미국의 군산복합체로 체계화하려는 아심은 그동안 생활중심교육에 치우친 질적 하락을 초래했다는 학계의 반성으로 군사과학기술을 발전시키려는 학문중심주의로 교육의 내용을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72년 「한국교육개발원」이 설립되어 발전교육론에 입각한 교육개혁이 미국의 감독하에 수립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세계조류속에서도 종속적 경제체제의 모순과 군부정권의 실재가 폭로되면서 정국은

반정부 반공교육의 강화와 75년 5월20일 학도호국단의 창설에까지 이르게 된다.

80년대 교육민주화를 위하여

제5공화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서의 특징은 주요한 결정들이 문교행정 상층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군관료출신의 정치상층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민정당 수석부에서 과외금지조치와 졸업정

육운동의 특징은 교육민주화를 전면전으로 투쟁해 갔다는 점이다.

81년 8월 아남화산, 82년 12월 오송화산, 83년 11월 교과서 분석자진등 민주화투쟁을 탄압하기 위한 조작사건들이 속출하였고 85년 7월 교육문제에 대한 민중의 불만이었던 「한국교육」지 사건은 「교육민주화」의 대진원이라는 의미를 지니었다. 86년 5월10일 「교육민주화 선언」은 교육운동의 실천적 분기점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보

교종대안, 무엇을 남길 것인가

파행이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교육계의 문제점을 논하여 교육으로 지적할 수 있는 교원론에 대한 관점의 차이로 문교부와 사립대생들이 팽배하고 있었다. 이는 비판적 소양을 지닌 교원들의 사립대입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선반전 학생운동에 대한 사립대생들에게 지급한 학비보조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소수학생에게 집중적인 장학금을 수여하여, 격적시사제를 실시하게 된다. 집중적인 장학금을 소수의 정예교사를 양성하겠다는, 평준화에 반대하는 극단적교육을 추구할 것이다. 격적시사제 또한 사회에 참여했다는 전제조건으로 격적시사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소수학생에게 집중적인 장학금을 수여하여, 격적시사제를 실시하게 된다. 집중적인 장학금을 소수의 정예교사를 양성하겠다는, 평준화에 반대하는 극단적교육을 추구할 것이다. 격적시사제 또한 사회에 참여했다는 전제조건으로 격적시사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소수학생에게 집중적인 장학금을 수여하여, 격적시사제를 실시하게 된다.

교부와 정권의 논리가 가장 절제된 것은 사립대이다. 교원들의 내용은 사립대 지원자는 학교장의 추천을 통해 지원해야하며, 학교는 면접, 적성검사를 강화한다. 이는 비판적 소양을 지닌 교원들의 사립대입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인 것이다. 선반전 학생운동에 대한 사립대생들에게 지급한 학비보조금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소수학생에게 집중적인 장학금을 수여하여, 격적시사제를 실시하게 된다. 집중적인 장학금을 소수의 정예교사를 양성하겠다는, 평준화에 반대하는 극단적교육을 추구할 것이다. 격적시사제 또한 사회에 참여했다는 전제조건으로 격적시사제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소수학생에게 집중적인 장학금을 수여하여, 격적시사제를 실시하게 된다.

생계안 교원이 보강되는 공립학교 교사직을 공개경쟁으로 선발한다는 것이다. 임용고사는 학교장직, 공개임용고사를 3:7비율로 반영하게 된다. 사립대생들은 「교과과정 이수」와 「사립대생들이 동일시 한다는 방침」으로 불공평적인 것이라며 반발을 보이고 있다. 임용고사제는 교사들의 정제현상을 단순한 예비교사간의 실력차이로 대조하는 정권의 속셈이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사립대의 고등교육의 경쟁과 혼란을 낳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임용고사제의 실시로 인해 공립학교에 대한 국립사립대의 우선권이 없어지게되며, 문교당국과 정부는 이를 국립대학과 사립대간의 「발달불균형」으로 호도하여 교원들의 본질을 희석시키고 있다. 국립사립대의 2배에 달하는 정제현상을 안고있는 사립사립대의 상황에서 교원직출세의 기회가 확대되는 사립사립대의 대교종대안투쟁은 본교의 경우만 보

아무리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야 한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국·사립대간의 괴리한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 될 것이다.

교원대안의 핵심인 임용고사제 부분은 사립사립대생들에게 해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국립사립대생들에게는 보강했던 취원의 분기점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된다. 이렇듯 첨예한 문제에 대해 정권(문교부·국교)에서는 「국립사립대생이 투쟁을 시작하길 이유로 바로 취원의 문제에서 비롯되었으니. 그러나 투쟁과정에서 전일제급의 사태까지 치달게 되면서 정권의 교육정책의도를 파악하게 되었다. 국립, 사립사립대생의 단결안이 교원대안의 처지와 함께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제는 경제개혁을 벗어날이할 때임이다라고 밝힌다.

교원대안은 대다수 국·사립대생의 발목목으로 희석시켜서는 안된다. 대 교원대안투쟁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통한 우연한, 신식민지교육에 맞서 민중민주주의를 투쟁으로 이 사회의 장래를 짚어낸 학생들을 변혁투쟁의 대오에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게하는 초석이 된다.

(서원수 기자)

외대학부의 광고대행사인 (주)나래기획이 외대학부 특색이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대학신문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이번 겨울 다음과 같은 행사를 합니다.”

동계 편집학교를 개최합니다

나래기획은 대학신문의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여름 '90학계 전국대학신문 사간자간 연수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번 겨울에는 전국대학신문간사를 대상으로 '91 동계 전국대학신문 편집학교를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행사명칭: '91 동계 전국대학신문 편집학교

창간대상: 전국대학신문간사

행사장소: 부산 송정해수욕장 소재 동성리서치타운

주최: 전국대학신문간사연합회

주관: (주)나래기획

전국대학신문간사대상 설문조사

나래기획은 「광고전시회복음」 및 「대학신문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보다 활발한 진행을 위하여 전국대학신문간사를 대상으로 「광고전시회복음」의 진행 실태 및 대학신문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내용을 기초로 보다 건전한 광고와 보다 활발한 지원사업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사대상: 전국대학신문간사

조사기간: 1990. 12. (한달간)

주최: (주)나래기획

주관: 전국대학신문간사연합회

마크 및 로고를 공모합니다

나래기획은 일하는 신문·건설한 광고를 위하여 여러분과 어울려 여러분과 함께 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여러분의 품과 이상을 담은 마크와 로고를 공모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공모내용: (주)나래기획의 마크와 로고와 「마크와 (주)나래기획」 ●공모시 광고대상: (주)나래기획은 건전한 대학신문광고대행사로 건전한 광고와 대학신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이에 걸맞는 이미지로 마크와 로고를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모기간: 1990. 12. (한달간)

●보낼곳: 100-120 서문지 중구 경동34-1 구 제재학교 주사무실 201호 공보담당자 앞.

●문의: 779-2355-6 공보 담당자

*공모에 응해주시는 분은 소정의 답례를 드립니다.

*일단 응모된 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V 나래기획

외국어 교육 최고의 자부심

파고다외국어학원

외국어 학습 성공자에게 외국어 공부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하면 「제대로 외국어 배우려면 파고다 외국어학원에 다오! 한다」 라고 많은 사람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특히 직장인 중에서) 이것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학원을 찾는 수강생들에게 학부후로 성취감을 주는 파고다학원의 모토가 잘 나타나 있다. 잔학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강 첫날 최고의 교수진이 펼치는 명쾌한 강의가 외국어 공부의 자신감을 준다.

총로2가 파고다공원 건너편 한빌딩 274-4000, 274-6821-2

외국어 학습 성공자에게 외국어 공부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하면 「제대로 외국어 배우려면 파고다 외국어학원에 다오! 한다」 라고 많은 사람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특히 직장인 중에서) 이것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학원을 찾는 수강생들에게 학부후로 성취감을 주는 파고다학원의 모토가 잘 나타나 있다. 잔학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강 첫날 최고의 교수진이 펼치는 명쾌한 강의가 외국어 공부의 자신감을 준다.

총로2가 파고다공원 건너편 한빌딩 274-4000, 274-6821-2

외국어 학습 성공자에게 외국어 공부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하면 「제대로 외국어 배우려면 파고다 외국어학원에 다오! 한다」 라고 많은 사람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특히 직장인 중에서) 이것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학원을 찾는 수강생들에게 학부후로 성취감을 주는 파고다학원의 모토가 잘 나타나 있다. 잔학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강 첫날 최고의 교수진이 펼치는 명쾌한 강의가 외국어 공부의 자신감을 준다.

총로2가 파고다공원 건너편 한빌딩 274-4000, 274-6821-2

외국어 학습 성공자에게 외국어 공부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하면 「제대로 외국어 배우려면 파고다 외국어학원에 다오! 한다」 라고 많은 사람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특히 직장인 중에서) 이것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학원을 찾는 수강생들에게 학부후로 성취감을 주는 파고다학원의 모토가 잘 나타나 있다. 잔학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강 첫날 최고의 교수진이 펼치는 명쾌한 강의가 외국어 공부의 자신감을 준다.

총로2가 파고다공원 건너편 한빌딩 274-4000, 274-6821-2

외국어 학습 성공자에게 외국어 공부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하면 「제대로 외국어 배우려면 파고다 외국어학원에 다오! 한다」 라고 많은 사람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특히 직장인 중에서) 이것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학원을 찾는 수강생들에게 학부후로 성취감을 주는 파고다학원의 모토가 잘 나타나 있다. 잔학하게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강 첫날 최고의 교수진이 펼치는 명쾌한 강의가 외국어 공부의 자신감을 준다.

총로2가 파고다공원 건너편 한빌딩 274-4000, 274-6821-2

프랑스어

1~2학기 수강생중

●개강: '91.1.3(木)

(방학특강반 개설)

alliance française

METHODES Adolescents-Adultes

TELEVISION

Nouveaux/Différent/Actual

알리앙스프랑스어

mainger 1, B. sans front. 1, B. B

archipel 1, B. B. home route 1

avec plaisir, France act. VIDEO

traduction, theme.

conversation libre, discussion, débat

soeur-centre 755-4972, 5702 (중구)

nam-seoul 555-1125, 1126 (남구)

PUSAN 622-3601 KANGJU 364-0189

TAEGU 255-4630 DAEJON 256-5181

alliance française

한글문화원

CPA, 세무사, 경영학, 회계학

한글문화원

한글문화원

한글문화원

한글문화원

한글문화원

한글문화원

한글문화원

한글문화원

한글문화원

90년 우리는 !



90 민중대회

「내각제제거와 민중운동단일 분쇄 및 우파과잉을 위한 노태우정권 퇴진 90민중대회」가 원천봉쇄를 뚫고서 11월25일 전국 11개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송갑석 전대협위원장 선출

전대협 제4기 의장선출과 90년도 전대협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총회가 4월12일 경희대학교에서 열려 송갑석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전대협의 제4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죽음으로 사수한 전대협 출범식

달리는 기차를 세우는 등 갖가지 기상천외의 방법으로 계속 집전, 경찰의 진국적 봉쇄망을 무색하게 했던 「전대협 제4기 출범식」에서 우리는 또 한번의 열사를 보내야 했다.



북한기자 본교방문



농민이 뚫었다

농민이 하나로 뚫었다. 지난 4월24일 전국대하 코에서 전국의 농민이 모인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초대의장으로 권광대 씨를 선출했다.



전국노동자대회

「전대일일사 20주기 추모 90전국노동자대회」가 11월12일(월) 고려대학교에서 7천여 노동자·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어 노동해방의 의지를 담아내었다. 이번 대회는 전대일일사의 뜻을 계승하고, 지역과 업종을 초월하여 노동자들의 단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었다.



원천봉쇄된 추수대동제

「90 전국농민 추수대동제」가 11월17일(토)부터 19일(월)까지 경희대학교에서 경찰의 원천봉쇄속에서도 강행되어 농민해방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법민족대회 무산

정부의 7·20반표와 반북선정사죄수 등으로 전국민을 한데 조국통일의 열기로 들뜨게 했던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법민족대회」가 결국 경찰의 원천봉쇄로 인하여 성사되지 못했다. 기대가 컸던만큼 실망 또한 컸던 법민족대회를 통하여 과연 반통일 세력이 누구인가를 다시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을 했는가?



남북고위급3차회담중인 지난 12월12일 로동신문 리집성기자들 북한기자 5명이 인수경대표의 모교인 본교에 들라, 총학생회실과 인수경후원사업회를 방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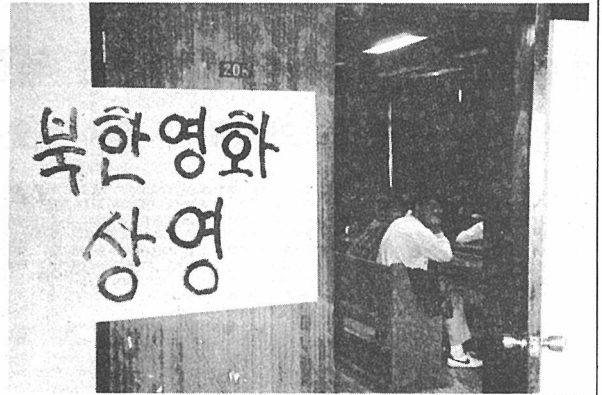
등록금 투쟁

네팔어 동안 학내를 뒤론든 등록금 인상 문제는 학우들의 격극적 인상 억제 투쟁에 힘입어 3월말 「등록금 조정 위원회」에서 14.8%의 인상안이 6.63%로 합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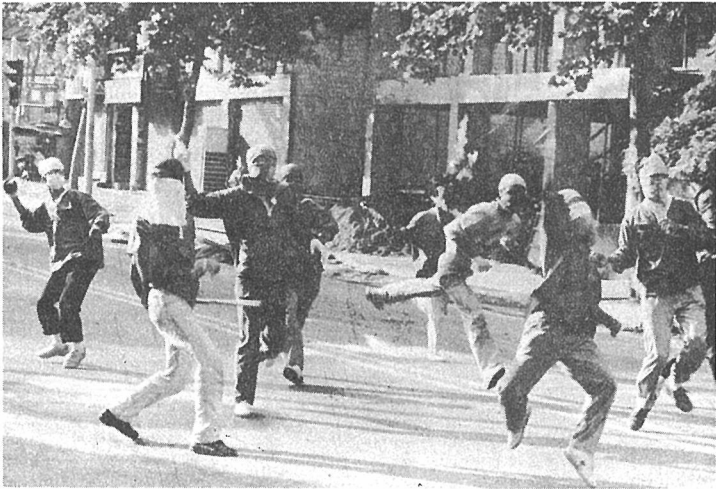
용인 학생회관 식당 직영화

2학기 들어서 용인캠퍼스의 「대학생활서비스」원동조합,은 국내 대학중 유일하게 학생회관 식당을 직영화했다. 학원자주화와 학내 복지향상을 위한 일보전진이었으나 학교측의 아무런 재정적 지원이 없어 현재 많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용인 북한영화 상영

10월31일 용인캠퍼스에서는 전대현 차원의 「북한바로알기운동」의 일환으로 「소금」, 「탈출기」를 상영하려 했으나 미리 데기해 있던 전경 7백여명의 학내 난입으로 10분여만에 상영은 중단되고 말았다.



조직사건 회오리

혁신동·사노동·자민동 등 위기정권의 수사기관에 의해 연달아 발표된 조직사건으로 혁신동 9명, 사노동 5명, 자민동 9명 등 총 23명 구속된 본교생은 조직사건으로만 23명에 달했다. 특히 「전대현을 장악한 반국가단체」로 조직발표된 자민동의 주요 거점이 본교로 지목되어 올해 본교학생운동단위에 대한 수위를 일갈해 왔다.



구국의 결단

보안사 정보원 활동을 강요받고 동조해오던 윤석양군은 10월4일(목) 사할증거를 공개와 함께 양심선언을 하였다. 윤군의 용기있는 결단은 군부의 민간인사찰 실태와 인권침해의 실상을 폭로하는 계기가 되었다.



보라에 열풍

지난 7월21일 서울 보라에공원에서 국민연합, 평민, 민주동 야권에서 주최한 「민자당폭거 규탄과 국회의원사퇴선언 및 조기총선촉구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서 발표된 야권합동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야권내부의 분열로 인하여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KBS 파업투쟁

지난 7월16일 여의도에서 방송사노조평화대행진이 진행되었다. 정부의 KBS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방송장악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이날 평화대행진에는 KBS, MBC, CBS등 방송사노조원들이 참여하여 MBC방송국 앞에서 여의도 광장까지 행진을 했다.

졸업시험 및 졸업논문제 점검

무성의한 제출 무감각한 평가

제학하는 논문이 붕괴적
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도
책수림이 미흡하다. 한편
제학과 박병호 교수는 졸
문의 의의에 대해 『4년』
같은 답이왔던 연구성과
고민하여, 글을 쓰는데
이 생각을 정리하는데

식, 논문쓰는 양식등 많은
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
학생들에게 성의있는 자
부탁한다.

지난 85년
어과와 함께
업시험제
출입은 문
변경한 불
육과는 87

본래 시행취지 못살려
과특성 살린 형태 필요

지적되었음에도 고쳐지지 않는 것은 교수·학생·학교측 자가간의 무관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학교원에서 졸업논문대신 과목을 살린 졸업발표회등으로 양성을 살리고 학교측도 이와 학생들이 마음껏 연구

판정이 일회적이라는 데

며 금기가 체본소를 찾
「말」지 2인2처이권을 암수
니 언론에 대한 탄압이
명.

그런 식으로 못보고 못
게 하려다가 나중에 만초
눈과 귀에 그대로 민행만
득활가 염려되오.

채워졌던 '경오년'이 지나
고 양의 상징인 신미년 새하
가 밝아.

좋은 말도 세번 들으면 하
른 소리로 들리는데, 하물며
양치기 소년 거짓말하듯 양
뫼한 생각만 하는 나리들.

을 한해는 그대들의 거짓

상속!!
요즘인상/한마디가/꿇가

민주화 합창

■ 제2회 겨울학교

■ 청리야학 교사모집

·자격:89학번 이상

· 때: 1월14일(월)~2월19일

오후 2시
· 곳: 대학원 건물 6418
· 신청기간: 1월 14일(월)까지
· 접수장소: 대학원 건물 4층
 의학연 사무실
· 수강료: 분야당 5천원
· 내용: 문학·원론·정세분야
외대대학원 학술운동연합

서예특강

· 때: 1월 7일(월)~2월 8일(금)
오후 2시~5시
· 곳: 학생회관 3층 서실
· 내용: 서론·서예실기
· 수강료: 1만원
· 접수기간: 1월 17일(목)까지
〈외대서우회〉

〈비평가출판은 여러분의 광고입니다. 외대인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광고신청: 서울-본사기자실 (학생회관 203호)
울산-본사기자실 (학생회관 212호)

왕산골

■ 마당극 안내

아랍어과에서는 새로운 놀이문화의 창조와 공연을 통한 단합을 위하여 신입생 환영회에 마당극을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라며 이에 일정을 공고합니다.

·때: '91년 신입생 환영회
·곳: 학생회관 휴게실(예정)
〈아랍어과〉

■ 21세기 사회와 사회정책

뜨거운 청년의 가슴을 갖고 씩씩
게 해방의 거리로 같이 달려나갈
입생여러분!
이태리어과 2백여 학우는 여려
울 기쁘게 맞이합니다.
〈씩씩하 이태리어과〉

《씩씩한 이태리어과》

■ 동계 농촌봉사활동

· 때: 1월 24일(목)~1월 27일(일)
· 곳: 경기도 평택군 일대와 모현면 일대

■ 돼지처럼 먹고 황소처럼 일함
시다.

■ 농활이라면 고독마저 감미롭다. //

〈총학생회〉

■ 영어과 90학번 여러분

신민년 새해에도 다들 즐겁고 보람찬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오는 22일(화)은 후기 신입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날입니다. 새로이 들어오게 될 신입생들을 위해 고사장 앞에서 후배들에게 차라도 한잔 권하는 선배로서의 사랑을 배워 주시기 바랍니다.
뜻이 있으면 분은 함께 모여서 눈의 줄 해 봅시다.

〈시벌시〉

한국영화 이젠 볼 수 없다?

—UIP적배영화 세력확장으로 존립기반 흔들리는 한국영화



1990년 12월15일 종로3가 서울 극장 앞에서는 웃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다. 「사랑과 영혼」이라는 적배영화를 보기 위해 늘어난 관객과 적배맨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영화인들, 그리고 불법 집회를 해산하지 않으면 퇴장 조치하겠다는 UIP영화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황. 이례는 본지 보도에 나온 UIP영화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놀랐고, 그로 인해 난감해졌었다. 이 광경이 끝나갈 즈음 전경들은 우리를 비스에 때며 남산 국립극장 앞에 내려 놓고는 국내 영화계로 이어져 있던 길을 막아 버리고, 간이 실려 갔던 터널로 오면서 쓸쓸한 기분을 떨쳐 버렸다. 그 광경이 끝나갈 즈음 전경들은 우리를 비스에 때며 남산 국립극장 앞에 내려 놓고는 국내 영화계로 이어져 있던 길을 막아 버리고, 간이 실려 갔던 터널로 오면서 쓸쓸한 기분을 떨쳐 버렸다. 그 광경이 끝나갈 즈음 전경들은 우리를 비스에 때며 남산 국립극장 앞에 내려 놓고는 국내 영화계로 이어져 있던 길을 막아 버리고, 간이 실려 갔던 터널로 오면서 쓸쓸한 기분을 떨쳐 버렸다.

수가 법개정전인 85년에는 27편, 개정후인 87년에 99편, 89년 2백41편(이중 미국 영화는 1백50편)에서 알 수 있듯이 적배영화의 주를 이루는 미국 영화의 영향력이 점차 커져 갔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폭력, 섹스, 풍상 파괴, 미국 영화의 주를 이루는 미국 영화의 영향력이 점차 커져 갔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폭력, 섹스, 풍상 파괴, 미국 영화의 주를 이루는 미국 영화의 영향력이 점차 커져 갔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폭력, 섹스, 풍상 파괴, 미국 영화의 주를 이루는 미국 영화의 영향력이 점차 커져 갔음을 알 수 있다.

이 생존권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설사 합동계 제작비를 구해 제작을 한다고 해도 개봉작 장수가 합동계 기반 제작비 회수로 어려울게 뻔한 사실이다. 더구나 94년부터 영화진흥위원회를 개편하고, 전적으로 대중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영화를 위한 우리 것에 대한 판단 기준조차 흐려지고 있는 대중의 취향을 고려해 세우는 데 영화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결집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논평

문 상영관 설립과 한국 영화에 대한 세균 감염 해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영화인세대교제를 통해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전적으로 대중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영화를 위한 우리 것에 대한 판단 기준조차 흐려지고 있는 대중의 취향을 고려해 세우는 데 영화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힘이 결집되어야 할 것이다.

이정국
(세빛영화사·영화감독)



"새내기 맞이"

—지난 17일(월) 신입생 예비소집에 나온 재학생들 (주재영 기자)

노래의 탄생 이야기



박종화의 「나의 사람

나의 노래」를 읽고

노래는 대중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인만큼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도 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의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는 노래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투쟁의 현장에서 그 상징적 역할을 하는 노래가 모든 이의 가슴 깊숙한 곳으로 불어넣어질 때, 노래는 우리가 되기도 한다.

노래는 대중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인만큼 우리 생활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도 한 크다고 할 수 있다. 대중의 정서를 잘 반영하고 있는 노래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고, 투쟁의 현장에서 그 상징적 역할을 하는 노래가 모든 이의 가슴 깊숙한 곳으로 불어넣어질 때, 노래는 우리가 되기도 한다.

이렇듯 우리 생활과 가까이 하게 되면 직접 노래를 만들어 보고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창작에 있어 예초에 의도했던대로 곡을 만들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창작에 대한 전문적인 이론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우리 생활과 가까이 하게 되면 직접 노래를 만들어 보고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창작에 있어 예초에 의도했던대로 곡을 만들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창작에 대한 전문적인 이론이 부족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방학동안 부담없이 읽으십시오

독습은 해방구

—권순상 지음
『독습들은 이쪽을 모스크라라고 불렀다. 소의 뱀장리로 낙인찍힌 피수물만 수를 되어 있고 무기수 또는 10년 이상의 장기수감되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본문중에서) 전체 3부 9권으로 된 장편 대하소설로 반민족의 구체적 증언을 토대로 그려졌으며 반민족의 이름이 문장마다 배어나는 책이다.
(백산사당판본 3천5백원)

나의 젊음 나의 군대

—김태원의 지음
다양하게 군대생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군대의 실체를 인식하도록 한 책이다.
해방직인 군대의 구조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고 당당히 주체로 서 나가는 필자를 해 모습이 찬찬히 감동으로 다가 온다.
(북진퍼블 4천원)

완전한 만남

—김하기 지음
『오로지 조국을 사랑했다는 단 하나의 죄 때문에 지금도 저가를 감당하고 세계 최강의 정복을 사시는 장기수 선상장들과... 독자들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지자 서문중에서)
신예작가로 주목받고 있는 저자의 단편소설 모음집으로 사회에서 소외된 장기수 문제를 그려내고 있다.
(창작과 비평사판본 3천8백원)

빨치산의 딸

—정지아 지음
남로당 전남도당 조주부 부장인 아버지의 남부군의 정치지도원이었던 어머니. 빨치산의 딸로 태어나 수녀의 가혹한 교육을 견디고 자기의 부모의 혁명투쟁을 노동자 계급의 세계관 속에서 오늘의 상황에 접목시켜 서술한 장편소설이다.
(실천문화사판본 3천5백원)

조국 상·하

—김진경 지음
—김용근 지음
시인과 고난, 분단의 아픔이 절절히 우리 조국의 역사를 기록한 단편소설이다. 독자에게는 조국을 통해 항쟁의 참상을 느끼게 해 준다. 『조국의 아픈 상처까지도...』 (본문중에서) 북에 있는 사람들은 자식들에 대한 애정을 그리워 때문에 자식을 찾아다니고... (지자서문중에서)
(현장 문화사판본 4천원)

어머니의 길

—이소선 지음
—민중의 지리
아들 전태일의 죽음으로 모순된 사회구조에 분노한 민주화운동에 몸을 바치지 않았던 어머니의 가슴이 기록되어 있다. 독자에게는 자식들의 죽음에 대한 애정을 그리워 때문에 자식을 찾아다니고... (지자서문중에서)
(현장 문화사판본 4천원)

